

## 고등과학원을 떠나며...

글\_허석문 ·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고등과학원을 떠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새 동지를 틈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고등과학원을 내 집과 같이 여기며 편하게 공부한 탓인지, 이제서야 본격적인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사실 고등과학원에서의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저에게는 정말로 집이었죠). 여러 동료 박사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 언제나 묵묵히 도움을 주시는 행정직 선생님들은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분들이라, 수원의 한 사무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곧잘 생각나곤 한답니다.

제가 고등과학원을 처음 방문한 것은, 미국에서의 지도교수님이셨던 Dolgachev 선생님의 60세 기념 학회가 2004년도에 고등과학원에서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학회가 열렸던 대규모 강의실의 깨끗한 시설과 여러 유명한 수학자들이 한국의 한 연구소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축하연에서 금중해 교수님께서 Dolgachev 선생님의 제자라고 저를 다른 수학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실 때는 멋쩍으면서도 조금은 뿌듯해했었던 기억도 있답니다. 2006년도에 세미나 발표를 위해 잠시 방문한 뒤로, 저는 졸업과 동시에 박사후 과정을 위해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개인적인 사정도 작용하였지만, 외국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에, 2009년 3월에 드디어 연구원이라는 직책으로 고등과학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하

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고민을 많이 하였답니다.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는 어떻게 참석을 하지? 한국에서 고립되어 학문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들을 하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구나 싶습니다.

제 전공은 대수기하학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수다양체 위에서 정의된 벡터번들의 모듈라이 공간이 주요 연구대상입니다. 다행히 고등과학원에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끊임없이 해외석학들을 초대하여 학회와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덕분에 외국에서보다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수학자들과 더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됐으며, 제 연구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사님들과의 학문적 대화는 언제나 저에게 자극과 영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고등과학원은 재정적으로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구원 각자가 상당량의 연구비를 자기 재량껏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필요한 기자재도 구입이 가능하니, 정말 고등과학원에서만 가능한 특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등과학원은 이런 학문적인 환경 외에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연구소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깨끗



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 계절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겨울이면 수북이 쌓이는 눈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생각나는 건 뭉치뭉치해도 봄이면 산뜻하게 피어나 마음부터 따뜻하게 녹여주는 여러 꽃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한 고등과학원은 벌써부터 개나리로 뒤덮여 있더군요. 나를 잊지 않고 인사 나와 준 것 같아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연구실로 가는 길이면 언제나 신선한 봄내음을 저에게 전해주었는데, 이제는 새로 오신 다른 박사님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으쓱해지면서도 부러워지네요.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고등과학원과과는 사뭇 다른 환경과 연구실 그

리고 사람들에, 아직도 출근할 때면 어색하고 설렘니다. 아기자기한 꽃들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고, 소수의 연구원들이 생활하던 조그만 건물 대신에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생활하는 커다란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등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던 학문에 대한 열정에 더하여 이제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힘들 때면 고등과학원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곳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고등과학원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열렸던 산악이벤트... 저도 참석 가능한가요? [KIAS](#)